

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. 그 일대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동도 많았고 사는 모습도 다양했어. 뽕나무 목수들은 무리를 지어 나무를 다듬고, 또 다른 무리의 목수들은 그 나무를 켜서 널빤지를 만들었지. 마차길을 따라 마차들이 오갔으며, 커다랗게 떼 지어 다니는 소와 말들은 광활한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, 평야에는 여러 채의 민가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네. 지대가 높아서 유럽에서 온 다양한 식물 종을 여러 장소에 걸쳐 재배할 수 있었어. 여기저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들판에는 수확해둔 밀이, 나무를 쏘아 낸 빈터에는 용단처럼 펼쳐지는 딸기밭이 보였고, 길가를 따라 늘어선 장미나무 덤불도 보였네. 서늘한 공기가 힘줄에 긴장을 줘서, 심지어 백인들의 건강에는 유익하기까지 했지. 이 고원은 섬 중앙 가까이 있으면서도, 키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, 바다도, 루이항도, 왕굴나무 성당도, 그 밖에 폴로 하여금 비르지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네. 루이항 쪽으로 여러 갈래의 지맥을 뺨아 보이고 있는 산도, 윌리엄스 평야 쪽으로는 가파른 고개로 이어지면서 직선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한 줄기 산등성이만을 보여줄 뿐이었지. 거기 여러 개의 각뿔처럼 높이 솟아오른 바위산으로는 구름이 모여들곤 한다네.

그래서 나는 그 고원으로 풀을 데려왔던 것일세. 나는 햇볕이 내리쬐든, 비가 오든, 낮이든 밤이든 그와 함께 걷